

유의동·황교안 단일화 평행선...유 "보수 목소리 모아야" 황 "후보 사퇴하라"

등록 2026.05.28 16:48:55



[서울=뉴스시스] 조성봉 기자 = 유의동 국민의힘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'보수 후보 단일화'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2026.05.28. suncho21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한은진 하지현 전상우 기자 =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는 단일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.

유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흩어진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데 마지막까지 제 모든 힘을 쏟겠다"고 말했다.

유 후보는 황 후보를 향해 "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면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것"이라며 단일화를 재차 촉구했다.

유 후보는 "저는 며칠 전 황 후보를 직접 만났다. 황 후보께 보수의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전하고 보수를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렸다"며 "하지만 아쉽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듣지는 못했다"고 전했다.

유 후보는 "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성사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"며 "이 자리를 빌려 황 후보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린다. 파렴치한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후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"라고 말했다.



[평택=뉴스시스] 김종택기자 =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21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 시장에서 열린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. 2026.05.21. jtk@newsis.com

황 후보는 이날 오후 평택에 위치한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유 후보가 오늘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를 했다. 평택시민을 기만하는 명분쌓기용 정치쇼를 했다"고 반박했다.

황 후보는 "알맹이도, 진정성도 없는 이번 회견은 오직 선거 판세를 흔들고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언론플레이이자 우리 캠프를 향한 전략적 압박에 불과하다"며 "앞에서는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는 척 생색을 내고 뒤에서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유 후보의 알뜰한 정치공학계 계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"고 말했다.

황 후보는 "유 후보는 자신이 속한 당의 대통령도 배신하고 자신을 돕는 동지들도 배신하고 지역주민들도 배신했다"며 "오히려 국민을 위해, 평택을 위해, 대한민국을 위해 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"라고 물었다.

그러면서 "진정한 보수 승리를 원한다면 밀실 압박이 아니라堂堂하고 공정한 단일화 협의 테이블로 나오라"고 촉구했다.

©공감언론 뉴스시스 gold@newsis.com, judyha@newsis.com, swoo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